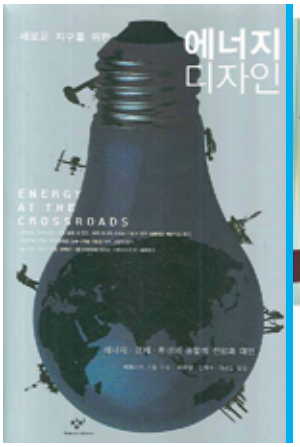
CULTURE



Book >>

SERI 전망 2009

권순우 외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보고서 『SERI 전망 2009』. 삼성경제연구소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09년 한국의 경제, 산업, 기업, 사회의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구조적 변화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경제지표나 표면적 현상만을 나열한 전망서가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미래의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천적 대안까지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미래가 현재의 연장선 위에 펼쳐질 것이라는 단선적인 사고로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발상의 창조적 전환을 통해 단층적인 변화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금융위기가 지나가고 난 후 세계 경제 질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며, 2009년을 대비한다.

새로운 지구를 위한 에너지 디자인 (에너지, 경제, 환경의 통합적 전망과 대안)

바츨라프 스밀| 허은녕 역| 창비(창작과비평사)

이 책은 지난 40여 년간 에너지의 기원과 생산, 인류문명의 발전과 생물권의 변화를 한데 묶는 통합연구를 선도해온 세계적인 지구자원학자 바츨라프 스밀이 에너지·경제·환경·과학기술의 광범한 학제연구를 바탕으로 21세기 에너지문명의 대전환을 제안하는 책이다. 이 책은 우리 시대 에너지의 생산과 전환, 사용의 과정 전체에 대한 거시적 조망을 통해 에너지 문명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 보인다. 저자는 사회적·산업적 측면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최종 소비자인 개인들의 의식과 일상적 실천에도 작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석유 조기고갈론 같은 비관주의와 신에너지원에 대한 기술 낙관주의를 동시에 경계하며 실사구시적 접근으로 가능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2018, 인구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김현기, 허원무, 정연승|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경제경영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인구변화를 기점으로 심층분석한 1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담았다. LG경제연구원, 로이스컨설팅 등 국내 유수의 경제경영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인구변화를 기점으로 1년 여에 걸쳐 심층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인구의 변화는 개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금융과 투자, 산업과 기술, 소비와 시장, 사회와 문화 및 비즈니스 영역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책은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장기적 차원의 변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와 각종 트렌드들을 담아 급변의 시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생존의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미래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를 둘러싼 가치관의 변화나 기후변화 그리고 기술의 진화 등과 같은 각종 다른 변화의 동인들도 함께 고찰하였다.

어드밴티지 메이커 (위기에서 기회를 만드는 리더들)

스티븐 파인버그| 신성환 역| 케이앤피북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페덱스의 프레드 스미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허브 켈러허, GE의 제프리 이멜트 등 수많은 어드밴티지 메이커들은 위기에 빠진 기업을 어떻게 살려냈는가? 이 책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뒤집는 반전의 기술을 소개한다. 오랫동안 기업 컨설턴트로 일했던 저자는 '시간, 상호작용, 인식, 구조(T.I.P.S.)'의 전략적 이동을 통해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상황을 유리하게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패배를 부르는 다섯 가지 법칙'을 통해 잘못된 태도를 찾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리더가 되기 위한 '아홉 가지의 설득 요소'를 습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당신이 몰랐으면 하는 석유의 진실

저자 레오나르도 마우게리 | 역자 최준화 | 출판사 가람기획

왜곡된 석유 시장의 패권주의자들, 그들은 석유의 비밀을 왜 공개할 수 없었는가? 석유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해가 많다. 이 책의 저자 레오나르도 마우게리는 석유의 다채로운 역사를 기술하고 석유 생산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명쾌하게 해법을 제시한다. 1973년의 석유파동, 1986년의 카운터 쇼크, 1998년부터 1999년까지의 석유 가격 폭락, 그리고 멕시코 만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간 이후의 가격 폭등 등을 언급하면서 저자는 석유시장의 역사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한다. 초기부터 거듭된 호황과 불황은 심리적인 불안을 최고조에 이르게 하기도 했고,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유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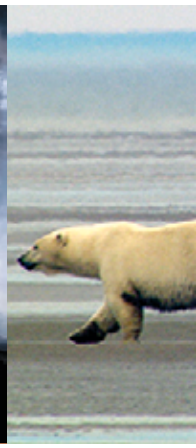
코드 그린: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

저자 토머스 L. 프리드먼 | 역자 최정임 | 출판사 21세기북스

미래를 위한 약속이자 도전! 인류 생존의 적색경보를 해제할 녹색 혁명, 더 나아가 세계 혁명의 시작! 이 책은 전 세계가 '그린(Green)' 해지는 거대한 혁명의 물결을 소개한다. 뉴욕타임즈의 국제분야 칼럼니스트이자 『세계는 평평하다』의 저자 토머스 프리드먼이 3년간의 침묵을 깨고 다섯 번째 책을 내 놓았다. 이번에는 지구촌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자는 이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국가의 성패가 달라진다고 말한다. 에너지기후 시대에는 녹색기술이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이 됨을 강조한다. 특히 복잡한 세계를 '뜨겁고(hot)', '평평하고(flat)', '붐비는(crowded)' 이렇게 단 세 개의 형용사로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런 다음 이상기온현상, 세계화의 확산, 글로벌 중산층 인구의 증가 등을 설명한다.

CULTURE



Movie >>

북극의 눈물

MBC 창사 47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제작진 : 허태정, 조준묵 연출, 노경희 작가

MBC 창사 47주년 특별기획 '북극의 눈물'은 '세계 극지의 해'를 맞아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는 북극을 찾아 광대한 자연과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원주민인 '이누이트(Innuit)'의 삶을 취재함으로써, 자연의 법칙을 인류가 운영하면서 어느 순간 지구가 치명적인 한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북극 지역의 자연, 동물, 인간 모두가 본래의 형태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를 들려주고자 한다. 온난화의 징후가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지금, 인류는 그리고 한국인들은 자신의 바로 앞까지 와 있는 대재앙의 경고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불편한 진실

감독 데이비스 구겐하임 / 출연 : 앨 고어

국가 : USA / 장르 : 다큐멘터리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앨 고어'가 준비한 특별한 프로젝트! 기온 상승은 국가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온이 상승함으로 인해 어떤 지역은 대홍수, 또 다른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을 것이며 기후까지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다. 이는 인류의 생명과 지구의 안위를 위협할 것이며, 우리는 결국 평생의 생존 터전과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이라고 앨 고어는 경고한다. 지금부터라도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고 앨 고어는 이야기한다. 전 세계를 돌며 1000회 이상 진행된 '앨 고어'의 환경위기 극복 프로젝트! 지구온난화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위협적인 진실들을 드디어 만난다!

검은 갠지스

감독 : 비니트 파마르(Vinit Parmar)

국가 : India, USA

성스러운 존재로 추앙 받는 갠지스강에는 죄를 씻어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강물은 가죽 공장들 때문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 수출 상품의 상당한 물량을 생산하는 이 오래된 산업은 인도의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쟁에 나서는 과정에서 공장주들은 환경법이란 난제에 부딪치고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직면한다.

떡갈나무 #41

감독 : 로버트 하딩 피트먼 (Robert Harding Pittman) / 국가 : USA, Germany / 장르 : 다큐멘터리

LA 근교 2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 개발예정지역과 연결되는 신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400년 된 떡갈나무가 잘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존 퀴글리는 71일 동안 나무 위에 살며 시위를 계속했다. 이 1인 시위는 나무 한 그루 이상의 커다란 움직임으로 발전하여, 그칠 줄 모르고 뻗어 나가는 LA의 도시화와 자연 사이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되었다.

가볍게 산다는 것(Living Lightly)

감독 : 로빈 버크(Robin Burke) / 제작연도 : 2006 / 국가 : USA / 장르 : 다큐멘터리 /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땅과 더불어 살아가는 21세기의 가족 이야기. 비도 가족은 농장에서 행동 명상으로서 낫과 같은 구식 농기구를 사용한다. 피터 비도와 아내 페이,

Place >>

세 아이들에게 낫은 도구이자 열정이며 낫이 사각거리는 소리는 멋진 협주곡의 선율과 같다. 놀라운 풍경 앞에서 비도 가족은 지구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다.

국내 최대의 자연늪, 우포늪

우포늪은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와 이방면 안리, 유어면 대대리, 세진리에 걸쳐있는 70만평의 대규모 늪이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늪지에는 수많은 물풀들이 머리를 내밀고 있다. 부들, 창포, 갈대, 줄, 올방개, 붕어마름, 벗풀, 가시연꽃 등이 무더기로 자라고 있다. 늪에 반쯤 밑동을 담그고 있는 나무들이 '원시'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개발이란 미명 아래 국내의 많은 늪은 사라지고 이제 늪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은 국내 한곳, 바로 우포늪뿐이다. 뭍도 아닌 물도 아닌 늪, 국내 최대 규모로서 온갖 풀, 나무, 곤충, 물고기, 새 그리고 인간을 품에 안은 자애로운 곳. 원시적 저층늪을 그대로 간직한 마지막 자연늪인 우포는 산으로 둘러싸여 개발이란 탐욕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생태계 박물관' 바로 그것이다. 이젠 보존해야 할 우포늪은 1997년 7월 26일 생태계 보전지역 중 생태계특별보호구역(환경부고시 1997-66호)으로 지정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1998년 3월 2일 람사르협약 보존습지로 지정되었다. 우포는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존해야 할 곳이다.

교통 >> 대구와 마산을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해 창녕 I.C 통과. 교차로에서 우회전, 이정표를 따라 약 5.8km. 회룡마을에서 우회전, 우포늪 세진주차장까지 약 2km

홈페이지 >> www.upo.or.kr

생명이 살아 있는 내연산 자락 경북수목원

포항은 바다와 가까운 곳이다. 하지만 내륙쪽으로 내연산이라는 유명산이 있다. 이곳에 동양 최대 규모의 경북수목원이 있다. 탐방로 10Km, 식물 18만여 본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자랑이다. 현재도 계속 공사중에 있는 것이 단점인데 이는 경북도의 대표 관광지로 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6년 개원 후부터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조성 공사가 시작되어 2009년에는 3차 개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그래서 시설부터 남다르다. 전시홍보실과 전망대, 연구동, 육묘온실 등도 마련되어 있는데 코스도 관광객의 시간에 따라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등 3가지 숲 해설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해발 720m에 설치된 전망대는 탁월한 조망을 자랑한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동해 쪽으로는 월포해수욕장이 있는 바다와 청하면 소재지 등 포항 시가지가 눈앞에 펼쳐지고, 반대편으로는 수목원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화가 난 순간 숲의 사진만 봐도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만큼 숲이 지닌 짙은 녹색이 사람에게 주는 쾌적함은 놀라운 것이다. 업무 스트레스로 지친 동료들과 화합도 도모할 겸 수목원을 찾아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으로 잃어버린 몸의 균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교통 >> 대구~포항고속도로 서포항IC→ 신광(68번 지방도)

경북도수목원 054) 262-6110

홈페이지 >> www.gbarboretum.org